

2018년 5월 4일

csf@kiep.go.kr

중국, 기업의 연구개발 확대와 혁신강화를 위한 감세 조치 발표



- 4월 25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확대와 혁신형 기술 기업 육성에 초점을 둔 감세 조치가 발표됨.
- 발표된 7개 기업 감세 항목 중 5개가 혁신형 기업의 연구개발비, 이월결손금, 직원 교육비, 투자유치와 관련이 있음.
 - 특히 설비구입비와 투자액에 대한 세제 혜택은 기존 정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 점이 특징임. (표 1의 1, 5번 참조)
 - 100만 위안 미만의 연구개발 용도의 설비는 상각을 1회로 진행 가능하고, 100만 위안 이상의 설비는 감가상각 기한을 60% 축소 또는 이중채감잔액법을 적용하여 세액 공제¹ (2014.09.24. 국무원 상무회의)
 - 8개 전면 혁신 시범구와 쑤저우(苏州) 공업 단지²를 시범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학 기술형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투자사, 개인투자자 투자액 70% 세액 공제 (2017.04.19. 국무원 상무회의)
 - 그 밖에 법인세 50%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영세기업(小微企业)의 대상범위 확대, 기업 인지세 인하 내용을 포함

표 1. 중국의 기업 감세 조치 내용

No.	내용
1	연구개발 목적으로 구매한 설비의 상각을 1회로 진행 가능한 설비 구매 가격 상한액을 1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.
2	기업의 해외연구개발비 항목은 세액 공제 불가하다는 조치를 폐지
3	첨단기술 기업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
4	일반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의 직원 교육비 세액공제율(비중 한도율) 2.5%에서 8%로 인상
5	과학기술형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창업투자사와 엔젤투자자의 투자액 70%를 세액 공제하는 정책을 8개 전면 혁신 개혁 시범구와 쑤저우(苏州)공업단지에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
6	영세기업에 대한 법인세 50% 감면 혜택 대상 기준을 납세소득액 5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인 기업으로 조정
7	납세자의 실제자본과 자본적립금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금장부의 인지세를 50%인하하고 기타 장부의 인지세는 면제

자료 :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의 결과 발표 자료(2018.04.25.)

1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단축하여 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기업은 초기 설비 투자비용을 빨리 회수할 수 있음.

2 8개 전면혁신개혁시범구(全面创新改革试验区)는 징진지(京津冀), 상하이(上海), 광둥(广东), 안웨이(安徽), 쓰촨(四川), 우한(武汉), 시안(西安), 선양(沈阳)을 포함하고 있고, 쑤저우 공업단지는 중국과 싱가포르가 합작 설립한 것으로 많은 첨단기업이 입주함.

- 중국은 기업의 혁신능력을 제고하고 국가 중·장기 산업정책을 추진하고자 이번 감세 조치를 시행함.
- 혁신형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 및 연구개발 장려를 통해 기업의 기술 수준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반영됨.
 - 2018년 양회에서 2018년 GDP대비 R&D투입 비중 목표를 전년대비 0.04%p 상승한 2.16%로 제시
 - 기업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연구개발과 혁신기술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고급 기술 인력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³
 - 중국은 '중국제조 2025', 인터넷 플러스' 등 국가 중·장기 산업정책 추진을 위해 기업의 혁신 기술 수준을 제고해야함을 강조
 - '중국제조 2025'의 9대 주요임무인 제조업 혁신능력 제고, 인터넷과 제조업의 융합, 10대 중점산업 육성 등 추진에는 기업의 기술 수준 제고가 요구됨.
 - '인터넷 플러스'는 정보기술과 모든 산업을 융합하는 정책으로 정책 추진을 위해 인터넷, 클라우드컴퓨팅,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 육성이 필요함.
- 중국은 기업의 연구개발 확대와 혁신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정책을 추진 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기업은 관련 정책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.
- 정부는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법인세, 부가가치세 인하 위주의 지원을 했으나 최근에는 연구개발비, 직원교육비 등 세제 혜택 항목을 다양화하고 있음.
 - 또한 2018년 기업 및 개인에 대해 총 8,000억 위안 규모의 감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향후 추가 감세 조치를 꾸준히 발표할 것으로 전망됨.⁴
 - 이번 감세 조치는 산업과 기업 규모가 특정되지 않아 중국과 외자기업 모두 혜택 적용 대상이 되므로⁵ 우리기업은 관련 정책 동향과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.
 - 2014년 9월 6개 산업에 대해 연구개발용 고정자산 투자 세제 정책을 추진한바 있어 이들 산업을 위주로 세제 정책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.⁶
- * 6개 산업: 바이오의약품제조업, 전문설비제조업, 철도·선박·항공우주·기타운수설비제조업, 컴퓨터·통신·기타전자설비제조업, 각종 기계장비제조업, 정보통신·소프트웨어·IT기술서비스업CSF

참고자료

중국 국무원, KIEP, 신화망 등

(작성자 :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전수경 연구원)

3 http://www.gov.cn/xinwen/2018-04/25/content_5285888.htm (검색일: 2018.5.2.)

4 중국 국무원 「정부업무보고(政府工作报告)」(2018.3.5. 발표)

5 2008년 이후 중국은 내·외자 기업 법인세를 25%로 통일하여 적용하고 있고, 2017년 1월부터 첨단기술 기업에는 15%의 법인세율을 잠정 적용.

6 http://www.gov.cn/guowuyuan/2014-09/24/content_2755686.htm (검색일: 2018.5.2.)